



불서 읽기 캠페인



광덕 스님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광덕스님 법문집|불광출판사 펴냄|1만2000원

처음 불교에 입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교에는 신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 물론 "신이 없다"는 대답을 듣게 된다. 그리고 "당신 스스로가 부처이다"라는 다소 무서운(?) 말을 듣고 의아해 한다. 그러나 차츰 교리를 배우면서 불교야말로 신의 존재 유무마저 초월한 지고한 가르침임을 알게 된다.

광덕스님의 법문들로 삶의 궁극적인 가치 일깨워

도심포교당 불광사를 창건 했다. 모든 인간 그 자체가 진리의 빛(佛光)이라는 광덕 스님의 가르침은 날이 갈수록 큰 빛을 발하고 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책의 제목 역시 그 가르침에 근거한다. 자신이 밝은 빛의 덩어리 진리의 덩어리임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짐다감하게 베풀어 놓는 스님의 법문들은 삶의 궁극적인 가치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스님의 '법등일승(法燈日誦)'의 한 대목에 그 답이 있다.

희망과 용기와 자신을 더하고 성공을 꿈꾸자. 영겁의 생명, 진리의 태양은 지금 우리의 가슴을 뛰고 시시각각 우리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다. 원래 우리의 마음은 보름달과 같이 원만한데 이를 가로막는 것은 번뇌 망상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법문과 바라림운동의 대의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 기도하는 방법과 자세 불교의 각종 의식과 명절의 의미 등을 테마로 한 법문들로 묶였기 때문이다. 은사의 법문집을 묶은 지홍스님(불광사 주지)은 책의 머리글에서 "인간에 대한 절대긍정 생명은 밝은데서 성장한다고 하는 대공정을 바탕으로 한 스님의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밝은 햇불 그 자체였다"며 "그 말씀은 생명의 언어로 메아리쳐 오늘날도 빛이 되어 우리의 가슴속에 떨리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임연태 기자

두려워 말고 흔들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

광덕 스님의 열반 9주기와 월간 <불광>지의 400호 발간에 때맞춰 나온 <마음이 바뀌면...>은 불자들이 수행 생활에서 일으킬 수 있는 의문들을 친절하게 해소시켜 준다.

부처님 알아야 불교안다

부처님의 생애

주선 지음|중앙출판사 펴냄|9000원

불교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부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불교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형성된 종교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생애를 아는 것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길이 열린다. 부처님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정확히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불교를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많은 불자들이 부처님의 생애를 알지 못한다. 당연히 사상과 가르침의 대의를 이해하는 수준도 천차만별이다. 심지어 역사 속의 실존인물로서의 부처님 즉,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제적 생애를 모르는데 경전에서 형상화된 부처님들과 보살님들의 수많은 명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불교는 어려운 종교라고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닐런지.

그간 부처님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한 책들은 많이 나왔다.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의 부처님에 대한 이해가 필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책을 통해 부처님의 삶의 궤적을 이해하고 가르침의 대의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 않다.

이 책의 저자는 동양고전을 연구하며 경역일신을 뛰고 있다. 그래서인지 아주 간결한 말솜씨로 부처님의 생애를 정리하고 불교의 기본 교리들을 첨가했다. 저자는 부처님의 생애를 출가이전과 깨달음의 길, 교화에서 열반까지 등 크게 3부분으로 나눠 설명하고 있다. 부처님의 탄생 이전 인도의 상황을 미리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낸 점도 돋보인다.

임연태 기자



달마는 9년간 무엇을 했을까?

달마대사의 소실육문

인해 역주 지안 감수|민족사 펴냄|1만8000원

달마 대사는 소림굴에서 9년 동안 면벽을 하면서 무엇을 했을까? 그냥 벽만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까? 누군가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 설법을 하기도 했을까? 하루하루의 일과는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참 궁금한 일이다. 달마 대사의 '9년 면벽'은 흔하게 듣는 역사적 기록이겠지만 그 구체적인 행적을 알기는 어렵다.

다소 엉뚱하고 무모할지도 모르는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이다. '소실육문'이란 바로 달마대사가 9년 동안 면벽수행 하였던 여섯 가지 법문을 통칭하는 말이다. 다시 말해 '소실육문'은 달마

여섯가지 '법문'을 읽어보라



달마도 범주 스님 작

설명한 '이종입' 안심법문의 요지를 설명한 '안심법문', 상(相)을 여인 수행이라야 도를 얻을 수 있음을 밝히는 '오성론', 깨달음의 궁극과 그에 이르는 방편을 문답식으로 전개한 '할백문' 등이 육문이다.

<달마대사의 소실육문>은 육문의 각 법문들에 대한 충실한 풀이가 돋보인다. 법문을 풀 인 해 스님은 해인사 강원과 동국대학교 석학과를 졸업하고 지금은 조계종 승가대학원에서 경학을 연마하고 있다. 스승인 지안 스님의 감수를 거친 이 책은 달마 대사 출생과 중국도래는 물론 입적에 이르기까지의 행적도 밝히고 있어 달마 대사에 대한 총체적 이해를 돕는다. 임연태 기자

한국불교에서 피어난 민족의식 조망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

김광식 지음|도파인사 펴냄|2만5000원

우리 역사에 있어 시대적 상황이 사상적 조류 혹은 이념에 따라 불교가 추구하는 정신적 가치가 차이를 보여 온 것은 사실이다. 한 시대의 불교적 정체성이란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명명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학문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민족불교란 이름 역시 우리 불교사에 있어 근현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흐름을 짚어 내는 '코드'다.

근현대 불교사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김광식 교수(부천대)가 펴낸 <민족불교의 이상과 현실>은 불교의 사회화와 대중화의 과정들을 통찰하면서 '민족불교론'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법사학 향일운동, 대한승려연합회 선언서, 민당 등의 사건과 한용운 백운상, 백조월, 방한암, 이정담, 강석주 등에 이르는 인물들을 통해 민족불교론의 토대를 충실하게 구축했다.

책은 모두 17편의 개별적인 논문들이 '민족불교'라는 핵 맥으로 이어지며 20세기 한국불교에서 피어난 민족의식을 조망하고 있다. 임연태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Table with 4 columns: 순위 (Rank), 도서명 (Book Title), 저자 (Author), 출판사 (Publisher). Lists 10 books including '하루 108배 내음을 살리는 10분의 기적' and '안젠가 이 세상에 없을 당신을 사랑합니다'.

*불서출판사 윤주사 제공 (02)3672-7181

Advertisement for '평생부자지갑' (Lifetime Father-Son Wallet) and '신묘장구 다라니' (Divine Treasure Dharani). Includes images of wallets and a key, and text describing the benefits of the products.

Advertisement for '고무신코 만행화' (Rubber Shoe Comfort). Includes images of shoes and insoles, and text describing the features and benefits of the products.